



대회참가기

# 제2회 가인법정변론대회를 마치고

이 용 정\*

- I. 들어가며
- II. 가인법정변론대회, 긴 여정의 시작
- III. 서면심사, 낮숨에 맞서 싸우다
- IV. 본선, 긴 준비기간 중 끝없는 토론과 비판, 그리고 성공적인 첫 법정변론
- V. 결선, 마지막까지 고군분투, 평등상 수상
- VI. 맺으며



---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재학.

## I. 들어가며

어느덧 추위가 물러가고 포근한 햇살이 강의실 창을 비추던 3월의 오후,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학우로부터 가인법정변론대회 후기를 투고해보지 않겠냐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함께 고생한 팀원들의 추억을 기록하는 기분으로 솔직담백한 경험담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통해 향후 가인대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외의 분들도 재미있게 읽어주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 II. 가인법정변론대회, 긴 여정의 시작

2010년 여름이 물러갈 때 쯤 적지 않은 대회의 공고들이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대회가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어떤 대회든 한 번은 나가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강했으나 다소 영어울렁증이 있던 저로서는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대법원에서 주최하는 가인법정변론대회의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막연히 재미있겠다는 생각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우들에게 팀 구성을 제안한 것이 길고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팀원 3명의 전공이 각 음악, 공학, 철학이라는 객관적으로 다소 무모(?)한 팀 구성으로 참가신청을 하면서 등록 비밀번호를 '결선진출'로 정할 때 까지만 해도 이듬해 2월까지 우리가 대회와 함께 하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대회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면, 대회는 크게 서면심사 - 본선경연 - 결선경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회 대회에서는 결선경연 이후 1위와 2위팀을 겨루는 경연이 추가로 개최되었으나, 제2회 대회부터는 결선경연에서 최종 6개 팀이 실력을 겨루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참가신청을 하게 되는데, 학교별로 참가 인원수의 제한은 없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서와 함께 인터넷으로 참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민사부문과 형사부문을 따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민사재판에 172개 팀 (서면심사 경쟁률 4.8 : 1), 형사재판에 138개 팀 (서면심사 경쟁률 3.8 : 1)이 참가하여 2009년 제1회 대회(24개 로스쿨에서 총 187개 팀)에 서보다 참가율이 월등히 상승하였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두 참가했다고 하니 재학 중 한 번 짚은 꼭 경험해볼만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선경연은 서면심사를 통과한 각 부문당 36개 팀이 6개조로 나뉘어 경연을 하게 되는데, 토너먼트 식이 아닌 추첨을 통해 배당된 상대팀과 1번의 변론기일을 가지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각 조별 1위에게는 우수상과 결선 진출권을, 그리고 2,3위에게는 각 장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선경연은 본선 6개 조에서 1위를 한 6개조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승부를 겨루게 되는 것입니다.

### Ⅲ. 서면심사, 낯설에 맞서 싸우다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 서면심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형사 부문의 주제는 강제집행면탈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대략을 보자면 피고인 甲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을 제3자인 법인에 양도하였는데,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부동산이 과연 피고인의 소유인지가 문제되었고, 또 양수인인 법인의 실체가 있고 진실한 거래가 있었는지, 허위양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甲은 이러한 와중에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법경찰관리와 함께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하였는데, 그러한 동행이 실제로는 강제연행이 아니었는지, 그 이후 작성된 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적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건기록과 1심 공판조서를 분석하여 변호인의 입장에서 법률의견서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비로소 형법각론을 배우고 있을 때라 죄명 자체도 낯설고 소송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막막하였습니다. 다행히 팀원 중 이미 형법각론과 형사소송법을 학습한 1기 조성은 학우가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주제도 주제였지만, 200쪽에 가까운 문제의 분량 또한 우리를 압도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대회의 문제 자체가 실제 있었던 사건, 즉 대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한 사건을 적당히 각색하여 만든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나 각종 증거기록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기에, 모든 사실관계가 다 정리된 상태에서 ‘법리’만을 물어보는 일반적인 시험문제만을 보아 오던 우리로서는 적잖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문제 속 피고인의 실제 변호인이 된 것을 상상하며 증거기록과 공판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흥미진진하였고, 그 속에서 쟁점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즐거움 또한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의 막막함 속에서 친히 기록을 다 검토해 주시고 쟁점정리를 해주셨던 교수님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낯선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과연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1주일의 기간 동안 매일 새벽까지 서면을 쓰고 또 고치는 작업은 매우 힘든 것이었지만,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의 즐거움은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서면심사에 참가한 다른 학우분들의 열정 또한 대단했습니다. 이 곳 법학관이 평소에는 공부의 무거움에 짓눌려 있었던데 반해 이 때 만큼은 참가팀들의 열띤 토론과 대회준비로 활력이 가득하였습니다.

#### IV. 본선, 긴 준비기간 중 끝없는 토론과 비판, 그리고 성공적인 첫 법정변론

아마 가인대회 기간 중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본선 기간이 아닐까 합니다. 본선 진행은 먼저 서면심사를 통과한 36개 팀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렇게 구성된 한 쌍의 팀에서 서로에 대해 2차례의 서면 공방이 있는 후 마지막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과정이 서면에 비해 상당히 길어, 문제 출제로부터 변론기일까지 약 4주가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회준비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선 문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함께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추후 상가를 분양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는 피고인 중 일부가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있던 A회사가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분양 과정에서 A회사가 피고인 전원과의 협의 없이 상가건물 일부를 용도변경하고, 새로운 법인B를 설립하여 B법인에게 염가로 상가건물을 분양하였고, 또 그 과정에서 상가의 일부를 B법인의 대출 과정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들이 횡령 및 배임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추첨을 통해 변호사측을 맡게 되었는데, 배임과 횡령으로 기소된 피고인 4인중 한명을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선에는 문제의 분량이 더욱 늘어나 약 350쪽으로 방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죄와 관련된 부분이라 기록이 상당히 복잡하였고, 또 민법과 상법의 쟁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서면심사 때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어 처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면서, 만약 내가 진짜 변호인 또는 검사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수많은 증거기록 중에는 변호인 측에 유리한 것, 검사 측에 유리한 것이 뒤섞여 있어 아무리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아도 그것이 또 다른 증거에 의해 뒤집히는 형국이 반복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주장만을 펼치면 족했던 서면심사와는 다르게, 본선부터는 상대 팀의 논리와 싸워야 했습니다. 상대 팀의 탄탄한 논리를 무너뜨리고, 또 무너진 우리의 논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어떠한 의견을 펼쳤을 때, 먼저 팀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상대방의 논리 역시 무너뜨릴 수 없기에 열띤 토론과 비판이 오고갔습니다. 종일 준비한 의견이 단 몇 분의 토론으로 뒤집혀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시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하기도 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갈등 해소를 위한 과정 또한 좋은 경험이었으며, 토론 과정에서 서로를 설득시키기 위해 각자가 이룩한 깊은 사유와 충실한 공부를 통해 '이것이 진정한 법의 묘미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변론 기일인 1월 17일은 그 해 겨울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추운 날이었지만 처음 법정외 변호인석에 선다는 기대와 두근거림에 가슴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양측이 준비한 주 변론을

마치고 재판부의 날카로운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측에서 서면을 통해 미리 지적했던 검사측 논리의 허점을 재판부도 공감하였는지 우리로서는 비교적 쉽게 변론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일천한 경험으로 법정에서 구술변론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실수 또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답변하려 힘썼고, 재판부가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솔직한 태도를 보인 것이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나라 재판부가 생각했던 것에서 다소 벗어난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준비했던 변론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시상을 할 때, 3위 안에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조 1위를 하여 결선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V. 결선, 마지막까지 고군분투, 평등상 수상

우리에게 행운이 함께 했던 것인지, 결선진출 6개 팀 안에 포함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최종단계인 결선까지 갔다는 것이 매우 기뻐지만,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서면심사와 본선을 거치면서 힘들기도 하였고, 또 다시 몇 주간을 여기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원하던 결선에 우리가 진출하였다는 자긍심과, 또 경희법학전문대학원의 대표주자로서의 책임감에 이러한 큰 행운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결선 문제는 앞의 두 문제와는 다르게 다소 ‘무엇이 정의인가’ 라는 가치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모계약과 낙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료는 약 20쪽 정도로 많지 않았는데, 기록이 적을수록 변론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대략을 보자면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 없이 자란 20세 여성인 피고인은 카드빚을 갚기 위해 타인의 수정란을 착상시켜 출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자궁을 빌려주는 대리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생활비를 받게 되었는데, 어린 피고인은 막상 배가 불러오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연락을 끊어버려 사기 및 배임, 그리고 낙태죄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대리임신을 하는 것을 두고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주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낙태죄의 경우 낙태를 한 사실은 사실관계상 명확하여, 낙태죄의 위헌을 다투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낙태죄의 경우 요약된 사실관계에서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이 명백히 충족된 상태였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강평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만- 위헌에 대한 다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무죄 변론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무리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어야 한다는, 다분히 시험에 임하는 학생의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마친 후 설득력이 떨어지는 무리한 변론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강평을 듣고 나니 대회 안내에서 항상 강조했던 ‘실제처럼’ 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는 어떻게 하면 정해진 ‘답’을 찾을까를 고민했던 반면, 결선 대회 이후 실제 법정에서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본인이 어떠한 법리를 통해 논리를 구성하고 그것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을 때 비로고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점은 추후 대회를 준비하는 학우들에게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선 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선의 상대팀은 본선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명석한 논리와 변론으로 우리 팀을 압박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질문 또한 답이 쉽지 않은, 우리가 가진 논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질문이 많았습니다. 순간순간의 변론은 즉흥적이기도 했지만,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그러한 순간적 판단이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변론이었지만,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상대방의 공격과 재판부의 질의응답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여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치열했던 결선 대회가 끝나고,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면공방을 거쳐 변론기일까지 숙적(?)이었던 상대팀이 1위를 한 것이 다소 분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팀 또한 평등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값진 것들은 결선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VI. 맺으며

이 대회를 통해 실제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해 봄으로서 책상에서만 공부하던 법 이론들이 과연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왜 그러한 법 이론들이 중요한지를 몸속 깊이 체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학교공부와 병행하여 대회에 매진하는 것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흘린 땀방울만큼 값진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학우분들에게 꼭 한 번은 이 대회에 참가하여 기량을 펼쳐 보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경희법학전문대학원, 학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